

## “국내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금융투자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에 대한 토론문

2015. 2. 12.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규

우리 경제는 자본, 노동 등 요소 투입 증가에 의한 개발도상국 유형의 양적 성장단계를 벗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선진국 유형의 질적 성장 모형을 추구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특화된 기술 및 사업성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위험을 평가하여 위험을 인수·관리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생산성 제고, 정보효율성 등은 차지하고라도 자본형성에도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되어 금융투자산업의 부진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최순영 박사님께서서는 이러한 상황을 거시경제적 여건에서부터, 금융투자업의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두 가지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문서비스 또는 암묵지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표 내용 중에서 금융투자업 특히, 증권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자문” 서비스를 통한 value proposition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암묵지(tacit knowledge 또는 skills)에 의존하는 사업분야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rephrase하고자 합니다.

선진시장에서는 IT의 발전과 함께 금융투자업의 사업모형도 크